

김장철만 찾는 김치타운...사업성 고민도 없이 땅부터 매입

■광주시 '애물단지' 김치타운에 또 투자 형세 낭비 비판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활용 목적과 계획을 구체화하지 하지 않은 채 부지 매입에 나선 데 있다.

35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광주김치타운' 자체가 시민들이 외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250억원을 들여 인근 부지 2만1317㎡(6450평)를 추가 매수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해당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 대금 완납 전인 2022년까지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 김치타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김치타운과 함께 김치박물관·마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관람객 김치테마 포토존, 놀이시설, 오토캠핑장, 야영장, 김치판매 시설, 김치기념품 등을 새롭게 구매할 부지에 조성한다는 것이다.

광주김치타운을 시민들이 찾아와 놀고 먹고 즐기고 야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

350억 들인 김치타운 만성 적자

매년 운영비만 17억원 투입

구체적 활용 방안부터 찾아야

모사업에 참여해 김치 미생물 시험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의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김치타운 개관 이후 10년간 보여줬던 흥행 참패, 만성 적자, 관리 실패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구체적 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김치타운 2차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렇게 되면 입주 민을 신경쓰느라 김치축제도, 김장대전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다"며 "토지 매입 결정부터 대금 완납까지 3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구

상을 면밀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남구 입암동(효천지구)에 개관한 광주김치타운은 김치박물관, 김치공장, 김치체험장, 김치홍보관, 관광기념품점 등 김치 관련 복합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김장철을 중심으로 한철에만 시민들이 찾고 있는 형편이다. 늦가을 3~4일에 걸쳐 열리는 김치축제, 겨울 한 철 열리는 김장대전 등 김치타운 양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은 5만명 수준이다. 이 한 철을 제외하면 하루 방문객은 고작 수십명 남짓. 김치체험을 하러 온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주부, 관광객 일부다.

김치타운 내 가공공장 입주기업들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는가 하면, 현 입주기업은 위생불량이 지적돼 광주 학교 급식 납품에도 탈락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다. 김치타운 한 해 수입은 1억원이다. 인건비 등 운영비에 연 17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만성 적자 구조를 타개해보려는 노력은 찾지 못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제외한 사업소는 적자가 대부분이라며, 만성 적자가 당연 시되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다.

본취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석으로 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넘쳐나는 유스호스텔·직업체험관으로 수익 날까

■전남도 'F1 경주장 활성화계획' 형세 낭비 우려

전남도가 최근 마련한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계획'은 경주장 내 경주팀원들이 머물렀던 팀빌딩을 10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이나 200명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경우 20억원, 유스호스텔로 바꾸는데 26억 5000만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유스호스텔쪽으로 추진중이다.

전남지역 산재 유스호스텔 등

운영 수입보다 유지비 더 들어

관광자원 연계 차별화 전략 필요



영암 F1 경기장

22개인데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6600개가 넘는다는 점이다. 없는 살림에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 체험시설(47개) 중 내년 완공 예정인 순천만잡월드 등의 경우 총 사업비 485억 원이 투입되는 전문 청소년·어린이 체험시설로, 광주·전남 뿐 아니라 충청·경상권 등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암·해남 관광중심형 기업도시사는 서남해안 일대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개발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단기간의 수익 확보나 개발 논리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관광자원과 국내 유일의 F1 경주장이라는 차별화를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매력 느끼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공을 쏟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등 체험일몰적인 개발계획이 아닌, 지역 관광자원을 집대성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전략과 함께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위기의 전남 농업, 회복 불가능한 타격

쌀 관세 513%→154%

보조금도 절반 이하로 줄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지자체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외국산 쌀·고추·마늘·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농업 보조금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 농업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감안, 김영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전남도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과 대응 과제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선언하고 관세나 보조금 정책에서 개도국 기준을 적용받았다.

다. 쌀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별품목으로 지정, 외국산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등도 특별품목으로 보호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같은 관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쌀은 관세율을 최대 154%까지 낮춰야하고 고추는 81%, 마늘 108%, 양파 41%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 가뜰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관세장벽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업인들 설명이다.

전남에서 쌀은 전국 생산량의 20.1% (76만6022t·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 23.1%(7만104t·2017년 기준), 양파 45.0%(51만4896t·'1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차기 농업협상이 언제 열릴 지 모르는데다, 타격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농업인들 불만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회 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남미러지기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 22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 반대하고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JEJUair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무안 출발

하이난&괌 신규취항 기념
특별할인 혜택!

5% 할인

- 10/30일까지 예약시 - 단, 현금결제 조건
- 하이난 품격, 괌 정품 상품만 적용가능

신규 취항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 토(6일)출발

알뜰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

279,000부터

무안/하이난(3/4)기내비/무안

전 일정 준5성급 호텔(그랜드 매트로 파크 호텔/코니퍼 호텔)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대중해 해변, 푸싱제+열대일시장, 삼아면세점(CDF),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품격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

719,000부터

무안/하이난(3/4)기내비/무안

전 일정 정5성급 호텔(원게이트 바이윈덤 씬아 루후이더우호텔)

NO기사/가이드경비, NO소풍, NO유선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약 \$160 상당 옵션 관광(대소동천, 행정빌리지, 녹회두 공원, 대중해 해변, 푸싱제+열대일시장, 전신마사지 1시간 제공),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신규 취항

힐링여행 괌

12/24,25,26,27,28,29 1/1,2~ 매일출발

정통 괌(성인2+소아2 패밀리티켓) JEJUair 4일

949,000부터

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현지 픽업 신청시 2일차 시내(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 리조트-슈퍼리조트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프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에어 필수)

니를 위한 최고의 여행지 대남

다남/호이안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정통 699,000부터

10/26,28,29,30 11/1,2,3,4,5~ 매일출발

전 일정 특급 호텔(반달리버프리트 호텔/오금), 1일 자유시간

다남/호이안/후에 (2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알뜰 549,000부터

10/26,28,29,30 11/1,2,3,4,5~ 매일출발

전 일정 특급 호텔(다사시 호텔/오금), 바나나 국립공원

휴양천국 힐링여행지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초특급 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929,000부터

10/31 11/7,14,21,28 12/5,12 [단, 7회 한정특가]

전 일정 초특급 호텔(반달리버프리트 호텔/오금)

코타키나발루(준특급 호텔) JEJUair 5일

알뜰 479,000부터

10/31, 11/7,14,28 12/5,12,19,26~ 매주 목요일출발

즐거자 휴양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세부

세부(솔레이씨부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549,000부터

10/29,30 11/5,12,19,26~ 매주 화,수,금,토출발

세부(세미팩-소드그란드리조트) JEJUair 5일

알뜰 469,000부터

10/29,30 11/1,2,5,6,8,9~ 매주 화,수,금,토출발

가성비, 여행 최적기에 떠나는 대남

대남(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품격 899,000부터

11/5,6,8,9,12,13~ 매주 화,수,금,토출발

대남(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정통 579,000부터

11/5,6,8,9,12,13~ 매주 화,수,금,토출발

가경포항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료, 식비용 등 필수 경비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안전경보단계] ●여행유형 / ●여행지 / ●항공권 / ●여행지 4단계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입출 상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타비]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비 상승에 따라 변경되고 있습니다. ●종료규정: 일반여행업 제47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품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리스크번호: 1589-8992 ●여행예약지: 부산항/소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일링(부채식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보, 임정권, 숙련된 등 안전규정에 따라 최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